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 성소, 소통, 관계: 성소란 무엇인가? (3부 연재중 제 1부)

2022년 10월 미국 국가형제회 총회에서, 평의회는 2022-2025년의 우선 순위 과제를 성소, 소통, 관계로 정했다. 2025년으로 진입하면서, 금요 양성은 이 우선순위 목표를 검토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 오고 있는지” 를 알아 보는 기회를 가져보겠다. 성소는 로마에서의 11월 국제 총회에서 선택된 우선 순위 과제중의 하나이다.

성소를 발견하여 끌어 들이기 전에, 성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1부는 우리의 양성 교재가 일반적으로 성소의 성격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 본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FUN 지침서, 프란치스칸 여정, 미국 재속회 양성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자료들에서 발췌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43: 1b, 4)*

#### ● 성소는 삼위일체의 삶을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초대이다.

- 우리 모두는 하느님으로부터 다음 세가지 “부르심”을 받았다.
  - 일차적인 부르심- 모든 사람들에게
  - 사적인 부르심- 개인적인 성소
  - 특정한 부르심- 재속프란치스코회로의 성소

**일차적인 부르심**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쪽에서도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때문에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고 우리와 소통하기위하여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또 조건없이 사랑하신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은 우리의 선한 행위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과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평신도직. 58쪽)

**사적인 부르심**은 하느님이 주도하신다.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은 강제로 우리가 응답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고유하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다루신다. 예를 들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첫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행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그들의 **사적인 성소**였다.

우리는 **완전함**으로 불려졌고 (마태 복음 19: 16-30의 부자 청년이야기를 보라 –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증인**으로 불려졌으며 (마르코 복음 5:1-20; 루카 복음 8:26-29 에 나오는 게라사인 마귀의 이야기를 보라 –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모두 알려라.”), **전적인 가용성 (TOTAL AVAILABILITY)** 으로

불러졌다 (루카 복음 19:5-7 –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외에도 성서에서 인용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예들이 있다.

**특정한 부르심** – 서약한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중 많은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 그러나, 특정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부르고 계신지를 식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 많은 날들, 때로는 수년이 걸린다.

**식별**은 우리의 삶에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종교적 상황에서 잘 식별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로 시작하라.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같은 것: [FA:ED, vol. 1, p. 40](#)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고 본인의 삶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느님께 원하는 것과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라. 그리고 하느님이 말씀하시게 허락하고 멘토나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물어 보라. 계속 기도하며 성령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열려 있는 여러 선택사항들을 다 탐험해 보아라.

#### **토론과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들:**

- + 당신의 특정한 부르심을 발견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을 하셨나요?
- + 하느님이 당신께 주신 어떤 은사와 재능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왔나요?
- +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인지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주에는 프란치스칸 성소라는 특정 성소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다룰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서 어떻게 성소를 인지하고 불러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